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연변팀의 극적인 무승부

— 극장골로 기사희생, 청도홍사에 1대1



3월 29일 오후 3시 30분, 청도시 천태체육장에서 진행된 2025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마지막 경기 추가 시간까지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완강히 박투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의 문은 열려있다 했던가. 경기 종료 직전에 연변팀은 꿈같은 페널티킥을 얻었고 로장 박세호가 안정적으로 골망을 가르며 연변팀은 청도홍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변팀은 시즌 2라운드 만에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3,258명의 축구팬이 경기장을 찾은 이날, 청도홍사는 18번 리아남을 문지기, 15번 학육승, 4번 조성악,

11번 손석봉, 33번 석철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7번 레앙 노부레가, 20번 섭오쌍, 8번 가효침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으며 24번 송윤동, 10번 알베스, 9번 리왈디니오를 공격진으로 하는 4-3-3 전형을 들고나왔다.

한편 연변팀은 19번 동가림을 문지기, 14번 리룡, 15번 서계조, 3번 왕봉, 6번 리강으로 수비선을, 33번 호재겸, 31번 천창걸, 5번 도밍구스를 앞뒤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11번 음바, 10번 포부스, 7번 리세빈을 공격선에 내세운 4-2-1-3 전형으로 맞섰다.

탐색전으로 시작된 전반전에 두 팀은 서로 밀고 당기기로 상대의 공격을 막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했으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려고 노력했다. 청도

홍사가 몇차례의 공격으로 연변팀의 문전을 위협했고 연변팀 역시 맞공격과 패수 반격으로 상대를 괴롭혔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연변팀은 5-4-1 전형으로 진영을 내리면서 방어를 튼튼히 하였고 청도홍사는 다양한 변화로 연변팀의 수비벽을 뚫으려고 애썼다. 44분경, 연변팀의 한차례 패수 반격의 기회에 음바가 왼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간 공을 중앙선의 포부스에게 정확히 패스했으나 후자가 공을 잡지 못하며 아쉽게 득점 기회를 놓쳤다.

전반전은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쳤다.

후반전이 시작되며 연변팀은 허문광으로 리세빈을 교체 출전시켰다. 그런데 2분 만에 왕봉의 핸드볼로 청도

홍사에 첫 페널티킥을 내주었고 리왈디니오가 침착하게 땅볼로 우리 팀 골문을 갈랐다.

추격에 들어간 연변팀은 랑쪽 측면 공격과 중앙선의 파고들기로 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번번이 청도홍사의 집중 수비에 걸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연변팀의 짧고 빠른 패스는 청도홍사의 방어에 막혔고 패스 실수가 이어지면서 힘든 경기가 이어진 가운데 천창걸 대신에 박세호, 포부스 대신에 리석민을 교체 출전시켰다.

연변팀은 진영을 상대 진영 안으로 올리 밀면서 기회를 노렸고 청도홍사는 방어면적전술로 공차단과 역습에 나섰다. 경기 70분경, 리룡의 왼발 슈팅이 골문 우로 날아갔다. 74분경, 부상당한 리룡 대신 황진비가 교체 출전했다.

75분경, 연변팀이 발동한 한차례 반격 기회에 갓 출전한 황진비가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쳤다. 두번의 슈팅을 날렸지만 모두 골문에 맞고 키퍼에 막히는 등 비운을 겪었다. 운수가 따라주지 않았다.

80분경, 황진비가 얻어낸 코너킥 기회를 리용하여 연변팀에서 배합 작전을 시도했지만 상대의 수비에 막혀 나왔고 있던 공격 시도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84분경의 한차례 기습 공격도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6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마지막까지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음바가 금지구역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후반전에 출전한 박세호가 침착하게 주도하여 동점골을 뽑았다. 이 골로 골문이 따라주지 않던 연변팀은 극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챙겼다.

들어오는 4월 6일, 연변팀은 또 한번 원정에서 룽닝철인팀과 격돌하게 된다. / 김태국 김파 기자

[관전평]

불굴의 투지가 만든 기적,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1%'의 힘



3월 29일 오후, 청도 천태체육장에서 펼쳐진 연변팀과 청도홍사 팀간의 경기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극적인 무승부로 기록되었다.

연변팀은 후반 시작 2분 만에 페널티킥을 내주며 0대1로 뒤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이 열세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진 가운데, 그것도 막바지로 치닫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적인 순간에 연변팀 선수 음바가 금지구역에서 치렬한 공방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었다. 박세호의 침착한 슈팅으로 동점골이 터지자 팬들은 환호했고 연변팀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소중한 1점을 챙겼다.

이 경기는 단순한 무승부 경기가 아니라 '불굴의 투지가 만든 극적인 승리'의 진수를 보여준 사례이다. 연변팀은 무승부 확률이 극히 낮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전술을 고수하며 기회를 노렸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선수들의 집념과 팀워크, 그리고 생물학적 각성 상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해신화팀과 치렬한 우승 다툼을 펼치고 있었다. 경기 종료 5분전까지 0대0이던 상황에서 리워봉의 헤딩골이 터지며 1대0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이 골로 심수건력보팀은 창단 첫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해 재정난 속에서도 선수들이 단합하여 이룬 우승이라 '가난한 팀의 기적'으로 불리우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어떤 약체팀도 강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마지막 1%의 힘'은 단순한 정신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연변팀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며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며 그 순간의 선택이 경기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적으로 경기 종료 5분전 득점의 22%가 동점 또는 역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까지 싸우는 팀은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기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법칙'일 뿐이다.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는 진리는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연변팀 선수들이 이 경기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앞으로의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의 갑급리그 령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불굴의 투지가 있다면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다.

필경 불굴의 투지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만드는 열쇠임을 이 경기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 안상근기자

[오늘의 영상]

박세호가 보여준 '로장의 품격'



올 시즌 고향팀에 합류한 박세호가 로장의 품격을 보여주며 경협이란 이런 것임을 경기력으로 증명했다.

개막전도 후보로 뛰었던 박세호는 이날(3월 29일) 갑급리그 제2라운드 대 청도홍사전에서 후반 61분에 교체 투입되었다. 그리고 역시나 박세호는 믿음을 결과로 보여주었다. 다년간의 슈퍼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는바 같같은 패스는 물론 백패 크로스까지 보여주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거기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페널티킥골이자 결정골을 선사하며 팀의 시즌 첫 승점 획득에 공을 세웠다. / 김가혜기자 / 영상 연변라디오 TV넷

길림 소년 최성우, 세계스트리트댄스대회 챔피언으로

최근 웹남에서 개최된 'RADIKAL FORZE JAM 세계스트리트댄스대회'에서 길림성의 15세 소년 최성우가 뛰어난 춤 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소년부 1대1 부문에서 챔피언 방어에 성공했다. 스트리트댄스(街舞)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 소년은 자신의 실력으로 중국 차세대 댄서들이 국제무대에서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빛나고 있음을 증명했다.

최성우는 2010년 9월에 태어났으며 현재 장춘시 길림대학중국학교에 재학중이다. 6살 때 우연한 기회

에 스트리트댄스를 접한 이후 브레이크댄스와 인연을 맺었다. 2023년, 겨우 13세의 나이로 중국무용가협회 스트리트댄스위원회 청소년 스트리트댄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무대의 령정을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최성우는 브라질, 웹남, 인도네시아, 한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영예를 안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막 15세가 된 최성우가 이번 웹남에서의 챔피언 방어전에서 30여개국의 최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폭발적인 플로어 동작과 창의적인 안무로 연속 3라운드에

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하며 국제심판단으로부터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융합'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성공의 뒤에는 땀과 노력이 있었다. "매일 방과후 최소 4시간 이상 훈련하고 주말에는 하루종일 추가 훈련을 한다." 최성우의 코치에 따르면 이 소년 챔피언의 일정표에는 여가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최성우는 "매번 경기가 배움의 기회이다. 나는 상대방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각 동작의 디테일을 완숙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연습한다."

고 말했다.

길림성무용가협회 스트리트댄스위원회 주임 왕삼달은 최성우의 성장 궤적은 중국 스트리트댄스 교육의 전문화 발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는 청소년 훈련부터 국가대표 선발까지의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더 많은 최성우와 같은 소년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국제무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민넷